

경찰의 핵심가치에 관한 연구

박형식*

요 약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조직과 작용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들도 경찰이라는 신분에 맞는 공사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각종 윤리강령, 경찰교육기관의 교훈, 자랑스러운 경찰인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찰의 핵심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핵심가치란 (Core Values)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로, 한 조직의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찰이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로는 희생정신과 정의감 그리고 명예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A Study on The Core Values of Korea National Police

Park, Hyung Sik*

ABSTRACT

The police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such as the Public peace and order,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olice system is to be provided i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And the policemen should live correctly in public or private living. The police shall perform the duties matching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But in reality the police disappointed, so the people were often to be angry. In this paper, I want to derive the core values of the police as a way to get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by analyzing the code of ethics, the moral of the police institution and the great acts of policemen. Core values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as the basis for action and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that make up the organizational culture. Core values of Korean police are justice and the spirit of sacrifice, honor.

Key words : core values, police, self-sacrifice, justice, honor

접수일(2014년 5월 7일), 수정일(1차: 2014년 5월 18일),
게재확정일(2014년 5월 19일)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서 론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조직과 작용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들도 경찰이라는 신분에 맞는 공사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3.15부정선거와 같이 경찰조직이 특정정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는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조직의 행위는 결국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분열 나아가 정부가 전복되기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음주운전, 도박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이다. 지난 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계 중국인 오원춘이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하여,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살해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느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112신고센터의 무능력으로 인한 상황 오판, 허술한 대처, 부실 수색,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 등 경찰의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직위 해제되고, 경찰청장이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번 2014. 4. 17.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인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즉,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침몰하는 배의 위도와 경도를 묻고, 배의 종류가 화물선이나 여객선이라고 묻는 등 신고 접수 체계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그 뿐 만 아니라 배가 가라앉고 있는 현장에서 퇴선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사고 직후에도 해경은 우왕좌왕하면서 소방방재청 구조헬기의 도움을 외면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유치장이 아닌 경찰 집에서 재워 누군가 접촉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경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신고 접수 및 처리, 사고 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위기 상황에서의 구조 매뉴얼, 해양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등 해경으로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안전한 사회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각종 윤리강령, 경찰교육기관의 교훈, 자랑스러운 경찰인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찰의 핵심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핵심가치의 개념

핵심가치란 (Core Values)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로, 한 조직의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핵심가치란 ‘우리의 내면세계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직 내에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하는 의사결정과 행동방식의 기준’을 의미한다. [1]

2.2 경찰의 핵심가치의 필요성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핵심가치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핵심가치가 필요하다. 우리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

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하면서도,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비권력적 작용을 하기도 한다. 결국 경찰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헌신하는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관으로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핵심가치가 필요하다. 경찰관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대항하는 경우 일지라도 경찰관은 이를 제압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도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만의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관들에게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국의 경찰은 국가경찰로서 국가통치권의 최일선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법집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여건에 처해 있다. 그러나 경찰의 핵심가치는 '가치관의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이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3. 경찰의 핵심가치의 분석 및 도출

3.1 경찰의 각종 윤리 강령 등 분석

3.1.1 경찰윤리헌장[警察倫理憲章]

대한민국 경찰의 경찰윤리규범은 최초로(1966.07.12 제정) 선포된 경찰윤리헌장이다. 경찰윤리헌장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경찰관의 기본정신과 윤리적인 행동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경찰 행동에서 갖추어야 할 규범성, 공정성, 청렴성, 근면성, 성실성, 합리성, 사명감 등과 같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I.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

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하여 항상 청렴 검소한 생활로써 명리를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I.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입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처리한다. I.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I. 우리는 이 모든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격과 지식의 연마에 노력할 것이며, 민주경찰의 발전에 헌신한다.

3.1.2 새경찰신조

1980년에 경찰윤리헌장의 실천윤리강령으로서 새경찰신조가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우리는 새시대의 사명을 완수한다 I. 우리는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I. 우리는 공정과 소신으로 일한다 I.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한다. 이 새경찰신조는 경찰관의 사명감, 청렴성, 공정성, 봉사정신, 능력계발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윤리헌장에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실행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1.3 경찰헌장(警察憲章)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독립 외청으로 출범하면서 1991년 8월 1일 「경찰헌장」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새로운 경찰헌장이 1966년에 제정된 「경찰윤리헌장」을 대치하는 것이었다. 경찰헌장의 제정배경은 경찰관의 공·사생활을 규율하여 시민의 사표(師表)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헌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경찰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 온 대한민국의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I.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I.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이다. I.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I.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I.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3.1.4 경찰서비스현장(1998년)

공직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청에서 지난 1998년 9월 30일 '행정서비스현장제정지침'에 따라 경찰서비스현장이 제정되었다. 실천덕목으로 본문 6개항의 내용은 ① 엄정한 직무수행, ② 신속한 현장출동 봉사, ③ 민원의 친절·신속·공정한 처리, ④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직무수행, ⑤ 인권존중 및 권한남용 금지, ⑥ 잘못된 업무처리의 즉시 확인 시정조치 등이다. 현재는 경찰 기능별로 생활안전·수사·교통·민원·경찰병원·진료서비스 현장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I.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I.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I.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I.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I.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잡겠습니다.

3.2 경찰교육기관의 교훈 분석

3.2.1 경찰대학교

경찰대학생과 경감이상의 경찰간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대학은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신념의 경찰인, 전문인,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국, 정의, 명예를 학훈으로 제정했다. 조국은 국가보위의 파수꾼이자 겨레의 선도자로서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움 없는 충성심으로 자랑스러운 내 조국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의는 올바르게 옳은 것은 배척하고 바른 것은 굳건

히 지키는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경찰인이 된다는 뜻이다. 명예는 경찰과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이해를 초월하여 선악과 시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지도적 인격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3.2.2 경찰교육원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이하 경찰관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교육원은 지식, 성실, 용기를 원훈으로 정하였다. 업무에 관한 깊은 지식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성실한 자세, 불의에 맞서는 담대한 용기를 갖춘 전문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 성실, 용기를 원훈으로 설정하였다.

3.2.3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젊은 경찰(청색), 따뜻하게 봉사하는 지혜와 덕을 겸비한 경찰(노랑색), 젊음의 열정과 정열로 숭선수범하는 경찰관 양성을(적색) 교훈으로 설정하였다.

3.3 자랑스러운 경찰인 분석

3.3.1 최규식 경무관

고 최규식 경무관은 1961년 경찰관이 되었으며, 1967년 10월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하였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하자 이들을 막아내다 순직하였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인 김신조 일당 31명이 박정희 등 정부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기습하였다. 당시 최규식 경무관은 자칭 CIC 대원이라는 거동 수상자 30여명이 세검정으로부터 지하방면으로 행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타격대 및 병력 출동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경 종로구 청운동의 노상에 긴급히 출동하여 빠른 속도로 행진해오던 일당을 정지시켜 배치경찰관으로 하여금 검문 검색하도록 하였다. 이에 CIC대원으로 사칭한 일당은 검문에 불응하고 최규식 총경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최규식 총경은 이를 뿌리치고 배치 경찰관들에게 이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하자 뒤에 따라 오던 일당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이 와

중에 최규식 총경은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계속 현지에서 배치 경찰관을 지휘하며 격렬한 총격전을 전개하다 쓰러지며 간첩 1명을 사살하는 등 필사의 저지로 뒤따르던 간첩들을 분산시켜 청와대 기습을 완전 저지하였다. 이들과 맞서 싸우다 “청와대를 사수하라”란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순국하였다. 사후 경무관으로 특진되었으며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3]

3.3.2 차일혁경무관

차일혁(1920.7.7.~1958.8.9)은 한국의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다. 그는 전북 김제군 금산면 성계리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건너가 중앙군관학교 황포분교 정치과를 졸업한 뒤 항일전을 위해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의용대에 들어가 팔로군과 함께 항일유격전 활동을 펼쳤다. 해방 후 귀국하여 유격대를 결성해 북한의 인민군과 싸우던 중 경찰에 특채되어 빨치산 토벌대 대장으로 복무하였다. 6.25전쟁 중에는 빨치산 소탕을 담당하는 전투경찰대 제2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며 조선 공산당 총사령관인 이현상 등을 토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급적 귀순을 유도하여 많은 빨치산의 목숨을 살렸다. 70명의 결사대원으로 2천여 명의 적을 격파하였고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도 사살하였다. 화염사 대응전 등의 문짝을 때내어 문짝만 조각함으로써, 천은사, 쌍계사, 선운사 등 유명한 사찰 등 문화재들에 대한 폭격도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4] 차일혁 경무관은 이후 공주경찰서장으로 좌천된 후, 1958년 금강의 곰나루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38세의 나이에 타계하였다. 2008년 문화재청에서는 빨치산의 근거지인 화염사 등의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절하여 명찰들을 보존한 공적이 있는 차일혁 경무관에게 감사장을 추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2011년 8월 차일혁 총경을 경무관으로 승진 추서하였다.[5]

3.3.3 안병하경무관

고 안병하경무관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에, 전남의 치안 총 책임자인 전라남도 치안국장이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하라는 강요, 협박 그리고 발포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이 때문에 5월26일 직위해제를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

로 끌려가, 10여 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 후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1988년 10월10일 생을 마감했다. 안병하국장은 계엄 하에서 무력사용 등 강경진압 압력과 서슬 퍼런 협박성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무기 회수 명령을 내려 시민보호와 안전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안병하 전남국장은 발포명령을 지시받던 순간 4.19 때 경찰이 국민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 가져온 불행을 떠올리고 경찰이 더는 역사의 죄인이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신군부에 적극 협조한다면 출세가 보장되고, 그러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닥칠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알았음에도 안병하 경찰국장은 결국 쉽지 않은 정의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2005년에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고, 2006년 국가보훈처에 순직경찰로 등록되었다.[6]

4. 경찰의 핵심가치 제언

4.1 희생정신

흔히 우리 경찰을 건국경찰, 구국경찰, 호국경찰이라고 칭한다[7]. 건국경찰이라 함은 해방된 후 국가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건국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이다. 구국경찰이라 함은 6.25전쟁과 빨치산 등을 격퇴하는데 있어서 경찰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호국경찰이라 함은 외부의 적 뿐 만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우리 국가를 보호한 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일혁 경무관의 경우에는 빨치산 대장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지리산 공비들을 소탕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최규식 경무관은 김신조 일당을 맞아서 청와대를 지키려다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희생해서 국가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고귀한 희생정신이야말로, 경찰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4.2 정의감

정의감은 올바르게 않은 것은 배척하고, 바른 것은 굳건히 지키는,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경찰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의 같이 신군부의 태산같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자세가 곧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라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눈 앞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 나만의 부귀영달만을 위해서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경찰의 핵심가치로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경찰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올바른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부패한 사회를 척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3 명예심

물론 돈, 명예, 권세가 다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이다. 경찰관으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몇 푼의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흔히 ‘빚’이라고 일컫는 외압을 견디지 못하여 직무수행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세나 돈은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경찰이 권세나 돈을 쫓아가게 되면, 국민은 경찰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전의우 역. 「비전을 넘어 핵심가치로」, Malphurs, Aubrey. Values-Driven Leadership: Discovering and Developing Your Core Values for Ministry(Michigan: Baker Books, 1996). p. 91.
- [2] 심우섭, “공군의 핵심가치 발견”, 정신전력연구 제38호 (2007년) pp.185-224.
- [3] 경찰종합학교, 「나를 희생하여 주위를 밝힌다」 최규식경무관일대기, 2008년.
- [4] 최선우외1. “경찰정신에 관한 연구”-차일혁을 중

심으로-.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2012). pp.358~362.

- [5] 경찰종합학교, 「살아있는 한국 경찰의 혼」차일혁총경일대기. 2008.11.
- [6] 경찰종합학교,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안병하경무관일대기,
- [7] 치안본부. 「경찰정신」. 1984.pp. 36~38.

[저 자 소 개]



박형식(PARK HYUNG SIK)

1985년 경찰대학교 행정학학사
 2001년 경희대학교 행정학석사
 2007년 광운대학교 행정학박사
 2008년~현재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k62711@naver.com